

#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木槨部와 積石部の 性格

金 大 煥\*

---

## 목 차

### I. 머리말

### II. 木槨部

1. 天馬塚의 木槨 構造
2. 天馬塚 甕口의 位置 復元
3. 金冠塚의 木槨 構造
4. 開口部 問題

### III. 積石部

1. 積石部の 區分
2. 木造架構의 構成
3. 側壁部 積石의 築造 過程
4. 天馬塚 積石部の 木造架構
5. 積石部와 木槨部の 築造 先後 關係
6. 積石部와 木槨部の 性格

### IV. 맺음말

---

---

\* 國立中央博物館, 文化財廳 新羅王京核心遺蹟 復元整備事業推進團 派遣.

## 國文要約

積石木槨墓의 積石部와 木槨部를 分離해서 研究하는 傾向은 日帝強占期부터 시작되었다. 二元的 系統觀이라고 崔秉鉉이 이름 붙인 研究 傾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傾向은 자연스럽게 積石部와 木槨部를 分離해서 研究하는 認識을 심어주었다. 現在까지도 그런 認識은 그대로 維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日帝強占期 日本人 研究者의 研究 觀點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最近 木槨部와 積石部를 정치하게 復元하고 그것을 土臺로 喪葬禮 또는 埋葬 儀禮를 復元하는 研究가 새로운 研究 傾向으로 登場하고 있다. 이러한 研究가 可能한 것은 過去 天馬塚과 皇南大塚을 精密하게 發掘하고 꼼꼼하게 報告書를 刊行한 先學들의 勞苦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積石木槨墓의 埋葬 儀禮를 復元하는 研究를 읽어보면 木槨部와 積石部는 別個의 構造가 아니라 儀禮 過程에서 서로 有機的으로 密接한 關聯이 있다고 理解된다. 그래서 側壁部 積石은 埋葬 儀禮를 위한 祭壇과도 같은 役割을 하였다고 보았고, 蓋部 積石이 쌓인 最終 形態는 建築을 形象化한 것으로 推定해 보았다.

### Ⅰ 主題語 Ⅰ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 木槨, 積石, 儀禮 祭壇, 建築

## I. 머리말

新羅 麻立干 時期를 代表하는 무덤인 積石木槨墓는 日帝強占期부터 100여 年の 研究史가 있다(金龍星 2010; 車順喆 2010). 지금까지 研究史를 다룬 글을 보면 주로 무덤의 構造와 系統, 副葬品 研究가 主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最近에는 그것과는 다른 觀點의 研究들이 登場하고 있는데, 代表的인 예로 무덤의 構造 復元을 根據로 埋葬 프로세스와 喪葬禮를 推定하는 研究를 꼽을 수 있다(예를 들어 崔鍾圭 2014, 金龍星 2015 등).

이러한 研究 傾向에 힘입어 積石木槨墓의 封土部·積石部·木槨部 構造 復元, 埋葬 프로세스 推定, 喪葬禮 復元에 대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崔鍾圭 2011, 金龍星 2014). 筆者는 이러한 研究 傾向을 學史 上 매우 중요한 轉換期라고 評價하고 싶다. 왜냐하면 過去 社會에서 죽음과 埋葬 儀禮를 說明하는 現代 考古學의 研究 흐름과 상당히 가까워진 傾向이기 때문이다(李盛周 2014). 다만 아쉬운 것은 基本 資料가 되는 積石木槨墓의 構造에 대한 理解에 여전히 큰 意見 差가 있는 점이다. 이런 意味에서 중요한 先決 課題는 積石木槨墓의 構造에 대한 좀 더 合理的인 理解를 土臺로 復元 研究를 進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筆者는 2015年 金冠塚 發掘<sup>1)</sup>에 參與한 바 있고, 現在 慶州市가 主管하는 天馬塚 리모델링 事業에 2016年 4月부터 關與하고 있다. 두 事業을 進行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整理된 듯한 積石木槨墓의 構造와 復元에 대해 여전히 다른 見解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에 대한 理解는 研究者마다 큰 認識의 差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筆者는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를 對象으로 現在까지 進行되어 온 몇 가지 論爭을 整理하고 具體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積石木槨墓의 木槨部와 積石部に 한해 論議를 進行하고자 한다. 무덤의 築造 過程, 埋葬 儀禮 또는 喪葬禮라는 觀點에서는 封土部까지 總體的으로 다루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高大 封土의 積石木槨墓를 直接 發掘해 보지 못한 筆者의 限界도 있고, 木槨部와 積石部를 既往의 研究와는 다른 觀點에서 接近해 보려는 意欲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部分에 限定시켜 論議를 進行하게 되었다. 이 점 諒解를 바란다. 또 이 글에서 말하는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란 李熙濬의 提案(李熙濬

1) 金冠塚을 ‘再發掘’이라고 表現하지 않은 理由는 日帝強占期 日本人의 金冠塚 調査를 도저히 發掘 水準으로 評價할 수 없기 때문이다. 當時 調査는 그냥 副葬品 收拾 調査 程度로 表現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996)대로 天馬塚과 皇南大塚처럼 地上式의 木槨과 積石을 意味한다. 論議는 주로 天馬塚, 皇南大塚과 最近 國立博物館이 發掘한 金冠塚의 成果를 土臺로 既存 研究의 問題點을 浮刻시키고 나름의 代案을 提案해 보는 方式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木槨部와 積石部를 구분해 연구해 온 觀點을 비판하고, 그 두 가지는 하나의 構造이며, 함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임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II. 木槨部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는 주로 木槨의 構造에 대해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그 예로 皇南大塚 南墳의 木槨에 대해 報告者(崔秉鉉)는 2槨 2棺으로, 金龍星과 崔鍾圭는 3槨 1棺으로, 皇南大塚 北墳 木槨에 대해 報告者(金正基·趙由典)는 1槨 2棺, 金龍星은 2槨 1棺, 崔鍾圭는 4槨 1棺으로 主張하고 있다. 天馬塚도 報告者(金正基·金東賢)는 1槨 1棺, 金龍星은 1槨 1棺, 崔鍾圭는 4槨 2(1)棺 構造로 推定하고 있다. 金冠塚 역시 1槨 1棺으로 報告되었으나 金龍星은 最近 2槨 1棺으로 復元한 바 있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및 1994; 崔鍾圭 2011; 金龍星 2014). 특히 最近에는 리모델링의 對象이 된 天馬塚과 國立博物館이 發掘한 金冠塚이 論難이 되고 있다. 木槨의 수뿐만 아니라 木槨의 높이 등에 서로 다른 意見이 있고, 꺾쇠나 開口部에 대한 理解에도 見解 差異가 있다. 아래에서는 天馬塚과 金冠塚을 對象으로 몇 가지 問題를 論議해 보고자 한다.

### 1. 天馬塚의 木槨 構造

最近 論難이 되는 것은 天馬塚의 木槨 構造이다. 天馬塚 報告者(金正基·金東賢)는 埋葬主體部를 하나의 木槨<sup>2)</sup>에 하나의 木棺 構造로 復元했다. 이후 天馬塚의 木槨 構造는 報告書와 같이 1槨 1棺으로 理解하는 研究者(예를 들어 朴永福 1977, 崔秉鉉

2) 天馬塚 報告書의 記述(“木槨은 封土 中心部 積石 下部에 設置되어 있었다. 東西를 長軸으로 正東에서 東南間으로 17度 기울어진 位置에 長邊 6m 60cm, 短邊 4m 20cm 크기로 周圍 壁面과 뚜껑이 木材로 짜여진 木室이었다.”)을 보면 報告者는 當時 天馬塚의 埋葬主體部를 木槨과 木室으로 記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記述은 엄격한 槨과 室의 概念으로 區分한 것이 아니라 그냥 現狀적인 記述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天馬塚의 埋葬主體部는 木槨으로 정리되었고 現在 木室으로 서술하는 研究者는 거의 없는 듯하다.

1980)가 大部分이었다. 一部 研究者는 內槨이 없는 것에는 同意하였으나(金龍星 2007) 木室의 概念이 導入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朴光烈 2014 p.63).

앞서 紹介하였다시피 最近 天馬塚의 木槨構造에 대한 새로운 見解가 提示된 바 있다(崔鍾圭 2011). 崔鍾圭는 天馬塚의 棺槨을 4槨2(1)棺 構造로 復元하였다. 報告書의 木槨을 4槨으로 보고, 石段 內緣에 3槨, 石壇 안팎으로 2槨과 1槨이 存在한 것으로 推定했다. 또 그는 1槨 內部에 二重의 木棺을 想定했다(도면 1).

崔鍾圭의 復元에서 石壇이 維持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擋板이 돌려져야 하는 점은 妥當한 指摘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石壇 밖의 擋板은 必要하더라도 안쪽 擋板은 木棺이 충분한 機能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石段의 內緣에 擋板을 設定하는 것은 좀 無理한 推定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天馬塚은 石段 위의 木槨과 石壇 밖 木槨의 存在가 想定된다. 즉 天馬塚은 內槨과 外槨의 二重槨 構造로 推定된다.

표 1. 木槨 크기의 比較

	皇南大塚 南墳	皇南大塚 北墳	天馬塚	金冠塚
內槨 크기(m)	4.7×2.3*	4.3×2.4**	4.2×1.8	5.15×2.36
外槨 크기(m)	6.5×4.1	6.8×4.6	6.6×4.2	6.4×4.2

\* 皇南大塚 南墳이 三重槨이라고 보는 觀點에서는 中槨에 該當함.

\*\* 皇南大塚 北墳 內槨의 크기는 金龍星(2007)에서 引用. 金冠塚은 2015年 發掘 當時 筆者 判斷

天馬塚 리모델링을 進行하면서 다시 問題가 된 것은 木槨의 높이이다. 報告者는 木槨 높이를 2.1m로 推定했다. 測定 方法은 報告書에 잘 既述되어 있듯이 封土 頂上部와 木槨의 木質이 最初로 나타나는 곳, 바닥의 레벨 數値를 利用해 推定했다. 이 方法은 天馬塚부터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에도 그대로 適用되었다.

사실 木槨 높이라는 問題의 發端은 積石部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天馬塚은 현재 木槨 높이가 너무 낮게 復元되어 木槨 위로 4m나 되는 積石部가 놓이게 되는데, 積石의 荷重이 너무 크다는 指摘이다. 그리고 最近 쪽샘 41號墳의 調査에서 木槨의 上部空間을 主張하는 研究者는 天馬塚 木槨에도 쪽샘 44號墳과 마찬가지로 上部空間을 想定하거나 木槨의 높이가 약 4m 정도로, 報告者가 推定한 2.1m 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地上積石式 木槨의 높이는 側壁部 積石의 높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研究 成果로 보면 木槨의 높이는 側壁部 積石과 거의

같거나 약간 낮기 때문이다. 天馬塚의 側壁部 積石 높이가 3.3m인 점을 考慮하면 木槨 높이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木槨의 높이는 3.3m 以下일 것이다. 또 報告者가 木槨 높이를 推定한 方法과 동일한 方法이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의 木槨 높이 測定에 適用되었다. 같은 方法임에도 불구하고 天馬塚 木槨 높이는 신뢰하지 않고,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 木槨 높이만을 信賴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따라서 天馬塚의 木槨 높이는 測定 方法과 側壁部 높이와의 關係를 考慮할 때 現在 2.1m~3.3m 사이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天馬塚 椁쇠의 位置 復元

天馬塚에서는 總 174점의 椁쇠가 出土되었다.<sup>3)</sup> 그러나 現在 天馬塚 內部 復元 木槨에는 어디에도 椁쇠가 表現되어 있지 않다. 報告者(金正基·金東賢)는 木槨 內部 中央과 北西쪽에서 發見된 椁쇠 片들과 鐵 片들로 보아 木槨 뚜껑에 緊結金具로 使用된 것 같았다고 했다. 아마도 報告者는 木槨 幅이 4m 以上이므로 뚜껑은 板材로 不可能하고 통나무로 덮었을 것으로 推定했고, 椁쇠는 木槨의 뚜껑에 사용된 통나무의 結構에 使用된 것으로 推定한 것 같다. 天馬塚 內부의 復元 木槨은 뚜껑이 復元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椁쇠의 表現이 없는 셈이다.

木槨 內 椁쇠의 用途와 機能에 대해서는 最近 綜合的인 整理가 있었다(李熙濬 2016). 여기서는 椁쇠의 用途를 各各의 說로 整理하고 綜合하였는데, 天馬塚 木槨은 各各의 說이 檢討한 木槨 構造와는 다르기 때문에 直接 適用하기 어렵다. 또 그러한 研究들은 椁쇠 自體의 形態나 椁쇠에 남아있는 木質을 直接 分析하여 내린 結論이 아니라 出土 位置를 주로 分析하여 내린 結論이기 때문에 椁쇠 自體에 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木棺이나 木槨의 構造는 椁쇠에 남은 木質이나 出土 位置를 綜合的으로 分析해 歸納的으로 내려야 할 結論이다(예를 들어 吉井秀夫 2000).

報告書에 따르면 天馬塚의 椁쇠는 木槨 上部에서부터 槨低에 이르기까지 木槨 內의 여기저기에서 흩어진 狀態로 多數 出土되었다고 한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p.17). 椁쇠는 實見한 結果 大部分 ‘ㄷ’字의 形態였다. 木質은 크게 2가지 類型으로 區分된다. 하나는 椁쇠의 양쪽 先端部에만 橫方向의 木質이 確認되는 것이고(1유형),

3) 現在 國立慶州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다. 關係者의 配慮로 實見할 수 있었는데 保存處理 結果 그 數는 더 增加한 것으로 推定된다.

나머지 하나는 先端部 뿐만 아니라 身部 안쪽에도 木質이 橫方向으로 남아있는 것(2유형)이다(도면 2). 木質의 殘存 狀態로 볼 때 꺾쇠는 橫長板을 上下로 結構하는 곳에 直交하는 方向으로 박힌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方式으로 꺾쇠가 박힐 수 있는 곳은 木槨의 側板 또는 뚜껑 등이다. 또 뚜껑과 側板을 結合하는 곳도 可能하다.

木槨의 부재와 結構 方法에 대해서 天馬塚 報告者(金正基·金東賢)는 半切한 통나무로 쌓아 올린 것이고, 結構는 반턱걸이 맞춤 手法이라고 했다. 이 手法은 最近 國立文化財研究所가 刊行한 『傳統 木造建築 結構法』에는 반턱맞춤으로 紹介되어 있는데, 두 부재를 서로 높이의 반만큼 따내어 맞춘 結構 方式으로, 十字 맞춤이라고도 한다(國立文化財研究所 2014 p.162). 半切한 통나무를 이렇게 맞춤했다면 木槨 側壁은 맞춤 單位를 上下로 쌓아 올라간 構造이며, 上下 部材끼리는 또 다른 結構가 必要한데, 꺾쇠는 여기에 박혔을 것이다. 여기에 박힌 꺾쇠는 木質로 볼 때 앞에서 소개한 後者の 類型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前者의 類型은 身部에 木質이 確認되지 않으므로 아마도 뚜껑과 側板을 結構하는 用途 또는 뚜껑을 構成한 통나무를 直交하는 方向으로 結構한 꺾쇠로 推定된다.

### 3. 金冠塚의 木槨 構造

金冠塚은 日帝強占期 收拾 調査에서 木棺과 木槨이 實際 確認되어 하나의 木槨 內部에 木棺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그러나 報告書에 掲載된 實測圖는 遺物이 收拾 되고 난 후 收拾者의 記憶과 收拾 當時 그린 스케치 등에 依存해 그린 復元圖이기 때문에 信賴度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天馬塚과 皇南大塚을 發掘한 成果를 根據로 金冠塚의 埋葬主體部를 다시 생각해 보면 木棺 주위의 石壇이나 木槨을 세우는 石段과 같은 施設의 存在를 疑心해 볼 수밖에 없다.

光復 以後 積石木槨墓을 綜合적으로 檢討한 崔秉鉉은 金冠塚 石段의 存在를 推定한 바 있다. 그는 金冠塚 報告者가 推定한 木槨 크기(길이 4.8m, 폭 2.1m 내외)가 皇南大塚과 天馬塚에 비해 너무 작게 推定된 것으로 判斷하였다. 뿐만 아니라 槨 바닥에

4) 日帝強占期 金冠塚의 調査와 副葬品에 대해서는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本文上冊』, (朝鮮總督府).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b,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上冊』, (朝鮮總督府). 濱田耕作·梅原末治, 1928,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下冊』, (朝鮮總督府). 濱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參照. 最近 이 報告書가 翻譯되었다.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1, 『慶州金冠塚 發掘調査報告書(國譯)』.

간 底板과는 약간의 사이를 두고 槨 壁으로 推定되는 一系列로 나란히 놓인 石列이 있었으며 그 사이는 川石이 깔려 있었다는 報告書 既述을 檢討하고, 나란히 列을 지은 石列을 木槨 받침 石段의 內面으로 推定했다(崔秉鉉 1980 pp.47~48). 이 石列을 그의 推定대로 石段으로 認定할 수 있다면 이 石段에 세워진 木槨의 存在를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金冠塚의 木槨은 石段 위에 세워진 木槨과 實際 圖面에 그려진 木材로 確認된 木槨, 즉 外槨과 內槨이 存在하는 二重槨 構造일 수 있다.

最近 金龍星도 金冠塚의 木槨을 二重槨으로 推定했다. 그는 남겨진 封土의 斷面圖로 보아 원래는 外槨이 設置되어 있었으나 內槨部만 調査된 것으로 보았다. 構造圖가 그려진 木槨은 內槨에 該當하고 그 바깥에 존재하는 外槨이 存在하는 二重槨式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 根據로는 單槨인 木槨으로 보면 出土된 遺物의 量이 너무 많다는 점을 거론했다(金龍星 2015 p.205).

2015년 金冠塚을 發掘한 結果, 墓壙과 木槨의 바닥 등이 調査되었다(國立中央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 2015). 墓壙은 거의 方形이었고, 크기는 東-西 720cm, 南-北 620cm, 깊이 40cm였다. 墓壙 內部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넷돌이 露出되었고, 바닥에는 자갈이 全面에 걸쳐 確認되었다. 墓壙 가장자리 넷돌은 채워진 듯 정연하지 않은 상태로 露出되었는데, 北쪽과 南쪽의 幅이 넓고, 東쪽과 西쪽은 상대적으로 좁았다. 北쪽 넷돌 幅은 175cm, 南쪽 넷돌 幅은 185cm, 東쪽 넷돌 幅은 80cm, 西쪽 넷돌 幅은 120cm이다(도면 3-1).

現在 넷돌 範圍 內緣의 길이는 東-西 520cm, 南-北 260cm인데, 日帝强占期 確認된 木槨의 外緣 크기가 南-北 236cm<sup>5)</sup>, 東-西 485~515cm 이므로 이 넷돌 內緣의 範圍는 當時 收拾된 木槨의 크기와 거의 一致한다. 墓壙 가장 자리 넷돌을 들어내는 作業 途中 木質이 墓壙 壁의 軸 方向으로 露出되었다. 이 木質은 南쪽과 北쪽 넷돌 아래에서는 最下部 石段 위에서부터 確認되었고, 東쪽과 西쪽 넷돌 아래에서는 자갈층 위에서부터 確認되었다. 이 木質의 幅과 길이는 東-西 640cm, 南-北 420cm였으며, 木質의 幅은 一定하지 않았다. 이 木質은 640×420cm 크기의 어떤 木材 構造物의 存在를 暗示하는 것이었는데, 前述한 日帝强占期 調査된 木槨과는 다른 또 하나의 木槨으로 推定된다. 즉 日帝强占期 調査된 515(最大值)×236cm의 木槨은 內槨이며, 內槨 外部에 640×420cm 크기의 또 다른 木槨, 즉 外槨이 石段 위에 있었음을 이번 調査에서 새롭게 確認할 수 있었다.

5) 日帝强占期 報告書에는 木槨 안쪽 너비를 200cm, 木槨 두께를 18cm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根據로 木槨 두께를 포함한 外緣의 너비는 236cm이다.



#### 4. 開口部 問題

天馬塚 報告者(金正基·金東賢)는 木槨 뚜껑을 檢討하는 過程에서 槨底 遺物層에 到達하기 直前に 發見된 環頭鐵棒에 注目하고 木槨 蓋部に 開口部の 存在를 推定했다. 東西 길이 220cm, 南北 120cm 크기의 開口部를 想定하고, 이곳으로 木棺을 木槨 안에 넣은 뒤에 開口部 위에 다시 別途의 뚜껑을 덮고 빗장을 걸어 마무리한 것으로 推定했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p.59 및 p.60의 插圖 27 參照). 이후 이러한 木槨 開口部 復元案은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가장 최근의 復元案은 崔秉鉉 2016 參照).

復元圖를 자세히 보면 開口部는 木棺 位置의 上部에 位置한다. 그러나 이렇게 開口部가 存在하려면 그 아래 木槨 뚜껑을 支持하는 構造가 반드시 必要하다. 그렇지 않고는 開口部를 비롯해 木槨 뚜껑은 水平을 維持하지 못할 것이며, 더더욱 上部에 蓋部 積石이 올라간다면 바로 무너질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같은 지지 구조 없이 木槨의 뚜껑에 開口部를 만드는 現在 復元案은 問題가 있고, 복원도의 開口部로 亡者를 懸棺下葬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現在로는 木槨의 뚜껑이 없는 狀態에서 懸棺下葬되었고, 副葬品이 安置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開口部가 存在한다면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門과 같은 構造의 추정이 가능하다.<sup>6)</sup>

### Ⅲ. 積石部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가장 큰 特徵은 역시 積石部이다. 現在까지 積石部는 木造架構를 먼저 짜고 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알려져 있다. 前者의 예는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에서 最初로 確認되었고, 最近 發掘된 金冠塚에서도 調査된 바 있다. 天馬塚은 報告書를 따른다면 後者の 예이다.<sup>7)</sup>

6) 이러한 점에서 環頭鐵棒을 三韓 및 三國時代 살림집의 出入門의 付屬具와 관련시킬 必要性이 있다. 그렇다면 木槨은 當時 살림집 또는 建築을 模倣했을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된다. 三韓 및 三國時代 살림집의 復元에 대해서는 咸舜燮의 글(2008)을 참조할 것.

7) 文化財廳 新羅王京核心遺蹟 復元整備事業推進團 金甫相 선생님의 조언에 따르면 現在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가 調査하고 있는 慶州 쪽샘 44호분의 積石部도 木造架構 없이 築造되었을 可能性이 높다고 한다.

지금까지 積石部에 대한 研究는 大部分 木造架構의 存在에만 注目한 나머지 積石部の 細部 構造와 築造 過程에 대해서는 論議하지 못했다. 단지 積石部の 築造 過程이 側壁部 積石과 蓋部 積石으로 區分된다는 研究와 皇南大塚 南墳의 積石部를 復元한 研究가 있었다. 最近 金冠塚이 發掘되어 積石部에 대한 새로운 情報를 確認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情報를 土臺로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積石部에 대해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자.

표 2.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積石部 높이(\*木造架構 높이로 推定)

	皇南大塚 南墳	皇南大塚 北墳	天馬塚
側壁部 積石 높이(m)	4.1*	5.7	3.3
積石部 最終 높이(m)	5.4		6.0
木槨(外槨) 높이(m)	3.7	4.0	2.1

## 1. 積石部の 區分

天馬塚 發掘로 積石部는 側壁部 積石과 蓋部 積石으로 區分되었다. 皇南大塚 南墳 主槨에서는 側壁部 積石과 蓋部 積石이 區分되었으나 南墳의 副槨과 北墳에서는 側壁部 積石만 確認되었다. 金冠塚은 積石部 上部가 大部分 破壞되어 側壁部 積石 一部만 調査되었다.

積石部를 側壁部 積石과 蓋部 積石으로 區分한 것은 중요한 成果임은 分明하다. 그러나 築造 工程과 埋葬 프로세스를 考慮하면 側壁部 積石과 木槨 사이의 積石 및 木槨 上部의 積石도 區分할 必要가 있다. 金斗喆은 側壁部 積石과 木槨 사이의 積石을 四周 積石에 該當한다고 보았는데(金斗喆 2009 p.79), 筆者는 그냥 四方 積石으로 부르고 싶다.<sup>8)</sup> 다음으로 四方 積石과 木槨 上部 積石은 蓋部 積石과 區分하기 어려우나 蓋部 積石이 없는 皇南大塚 北墳에서 木槨 뚜껑 床面을 넷돌로 채워 木槨의 上部 外面을 마감하였다는 記述이 있으므로 木槨 上部 積石을 따로 區分할 必要가 있다. 여기에서는 上部 積石으로 부르고자 한다. 整理하면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積石部는 木造架構로 制御되는 側壁部 積石, 側壁部 積石과 木槨 사이의 四方 積石, 埋葬 節次

8) 金龍星의 復元案에도 이러한 四方 積石이 表現되어 있지 않다(金龍星 2015 p.322 도9-7 참조).

를 끝낸 후 側壁部 積石의 床面 높이까지 木槨 上部에 積石한 上部 積石, 側壁部 積石 床面과 上部 積石을 덮은 蓋部 積石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도면 5-5 참조).

표 3.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積石部 區分(\*報告書는 皇南大塚 南墳 報告書)

	積石部 區分			
報告書*	側壁部 積石		蓋部 積石	
崔秉鉉	四方 積石		上部 積石	
金斗喆	側壁部 積石	四周 積石		蓋部 積石
筆者	側壁部 積石	四方 積石	上部 積石	蓋部 積石

## 2. 木造架構의 構成

積石部에서 木造架構<sup>9)</sup>가 確認된 것은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 金冠塚이다. 모두 側壁部 積石에서만 確認되었다. 지금까지 木造架構는 垂直木, 橫架木, 버팀목으로 構成된다고 認識되었다. 垂直木은 積石 사이사이에서 나무기둥 구멍이 確認되기 때문에 存在를 證明할 수 있다. 木槨 가까이서부터 內1陳柱, 內2陳柱, 內3陳柱로, 가장 바깥 垂直木은 外陳柱로 부르고 있다(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p.28; 李恩碩 1999). 橫架木과 버팀목은 側壁部 積石 外面에서 가로와 세로로 홈이 確認되기 때문에 認識할 수 있으며, 특히 버팀목은 地面과 만나는 곳에 기둥구멍이 確認된다.

側壁部 積石이 木造架構에 의해 築造되었다는 主張은 보고 當時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疑問을 提示하는 研究者는 없었다. 그러나 崔鍾圭는 단지 나무기둥만으로 積石을 統制하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判斷하고, 木造架構를 竹籠의 틀로 理解했다. 즉 四方에 木柱로 架構한 것은 여기에 竹籠을 장치하기 위한 뼈대일 可能性이 있다고 보았다(도면 1의 下). 木柱를 뼈대로 하여 竹籠을 設置하고 그 內部에 積石을 담게 되면 積石을 面的으로, 그리고 三次元的으로 統制할 수 있다고 했다(崔鍾圭 2011 pp.209~210).

9) 積石部 내부의 나무 飛階 틀에 대해 皇南大塚 北墳 報告者(金正基·趙由典)는 架設木 또는 木架構로, 皇南大塚 南墳 報告者(崔秉鉉)는 木造架構로 記述하였다. 一部 研究者는 木架構造라는 말을 混用하기도 한다. 木架는 우리나라 辭典에 없는 말이므로 木造架構라는 用語가 學史的으로나 辭典的으로도 的確하다고 判斷된다.

金冠塚의 積石部를 調査해 보니 垂直木 중 內1陳柱列의 積石部 最下段石이 石烈의 形態로 매우 가지런하게 調査되었다(도면 3-2). 筆者는 이러한 形態를 나무기둥만으로는 制御할 수 없는 現象으로 判斷했다. 결국 金冠塚 木造架構는 內1陳柱에 붙여 나란하게 板材 또는 橫架木을 쌓아올린 壁이 存在했고, 側壁部 積石은 이러한 壁에 붙여 積石을 쌓아 올린 것으로 推定된다.<sup>10)</sup> 그렇다면 木造架構는 기둥만으로 構成된 骨組가 아니라 기둥과 壁이 함께 組立된 構造일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된다.<sup>11)</sup>

### 3. 側壁部 積石의 築造 過程

金冠塚 發掘의 成果 중 하나는 側壁部 積石에서 木造架構 痕迹과 積石의 層位 關係가 確認되어 그것의 築造 過程을 推定해 볼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木造架構로 制御된 側壁部 積石의 築造 方式에 대해서는 거의 言及된 적이 없었다. 거의 唯一하게 皇南大塚 南墳의 構造를 復元하면서 木造架構와 側壁部 積石의 築造 過程에 대해 言及한 研究가 있다(權龍大 2009 pp.74~76). 이 復元에서 特徵적인 것은 木造架構와 側壁部 積石의 先後 關係이다. 皇南大塚 南墳 報告者와 大部分의 研究者가 木造架構를 設置하고 積石한 것으로 理解하고 있음에도 그는 木造架構가 어떤 構造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石築<sup>12)</sup>을 한 다음 木造架構를 設置한 것으로 判斷했다. 南墳의 主槨과 副槨 外側으로는 먼저 木槨의 높이만큼 石築을 쌓아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다시 石築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方式으로 側壁部 積石의 築造 過程을 推定했다. 그러나 이러한 理解는 몇 가지 問題가 있다. 우선 主槨과 副槨 外側으로 木槨 높이만큼 石築했다고 하는 이 石築은 앞서 筆者가 四方 積石(金斗喆이 提案한 四周 積石)이라 한 것에 해당한다. 이 石築, 즉 四方 積石은 側壁部 積石과 木槨이 築造되고 난 以後 그 사이에 채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築造된 것이 아니라 側壁部 積石과 木槨 側壁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築造된 것이다. 다음으로 石築과 기둥의 先後 關係이다. 이 關係는 2015年 國立博物館의 金冠塚 發掘을 통해 確認된 바 있는데, 內1陳柱의 기둥구멍 위에 石築이 얹혀 있으므로 기둥을 먼저 세우고 積石한

10) 皇南大塚 北墳 報告者(金正基·趙由典)는 積石의 內壁에 板材 등 다른 부재의 存在를 考慮한 바 있으나 調査 過程에서 그러한 痕迹을 發見하지 못했다고 한다(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p.39).

11) 木造架構에 板材가 存在할 可能性에 대해서는 金冠塚 調査 當時 調査團이 提起한 바 있고, 最近 洪潛植도 木板 또는 遮斷壁이 있었다고 主張하였다(洪潛植 2016 p.41).

12) 積石이라는 表現 대신 石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것은 分明하다. 그러므로 側壁部 積石은 木造架構를 먼저 짜고 内部에 積石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의 復元은 側壁部 積石의 築造 過程을 檢討한 점에서 意義는 있으나 築造 過程의 把握에는 限界가 있다.

金冠塚의 側壁部 積石은 크게 3段階로 區分해 볼 수 있다(도면 4). 1段階는 木造架構 築造段階이다. 垂直木과 橫架木을 연결한 후 板材나 橫架木을 쌓아 空間을 만들고 階段模様の 木造架構를 築造한다. 2段階는 木造架構로 만들어진 階段 模様の 空間을 積石하는 工程이다. 3段階는 側壁部 積石의 階段 部分을 三角 模樣으로 積石하여 側壁部 積石 斜面을 完成한다.

1段階 工程은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에서도 確認되었으나 차이점은 垂直木 간의 間隔이다.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은 內1陳柱부터 外陳柱의 間隔이 1.5m로 一定하지만 金冠塚은 內1陳柱와 內2陳柱 사이의 間隔이 相對적으로 넓고, 나머지 內陳柱와 外陳柱 사이의 間隔은 거의 一定한 편이다. 만약 金冠塚 木造架構의 內1陳柱와 內2陳柱의 높이가 皇南大塚처럼 같은 높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면 金冠塚 側壁部 積石의 床面이 相對적으로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側壁部 積石의 床面은 副葬品이나 亡者를 安置하는 作業 空間으로 推定되기 때문에 그 空間을 넓힌 것은 이러한 作業을 配慮했기 때문일 것이다.

2段階 工程은 木造架構 공간 안에 階段 模樣으로 積石하는 工程이다. 階段 模樣으로 積石하는 方法은 아직까지 論議된 적이 없는데, 세로 壁을 점점 낮게 쌓아 붙이는 方式과 水平으로 積石한 後 上部로 올라갈수록 길이를 짧게 積石하여 階段 模樣으로 築造하는 方式이 있다. 金冠塚의 事例로 보아 現在로는 後者の 方式이 採擇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3段階는 階段 模様の 積石部를 三角 模樣으로 積石하여 斜面을 만드는 工程이다. 이 工程은 金冠塚 發掘에서 最初로 밝혀졌다. 우선 外陳柱와 버팀목에 의해 形成된 三角 模様の 空間에 積石한 後 橫架木을 걸치고 그 위 階段을 다시 三角 模樣으로 積石해서 斜面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方式이다.

#### 4. 天馬塚 積石部の 木造架構

報告者(金正基·金東賢)에 따르면 天馬塚은 積石部の 木造架構가 確認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基本的으로 天馬塚은 木造架構 없이 積石部를 築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崔秉鉉 1992; 洪潛植 2003). 最近 天馬塚 리모델링 事業에서 이 問題가 다시 浮刻된 적 있는데, 그 理由는 最近 金冠塚 發掘에서 木造架構를 먼저 짜고 積石部, 具

體的으로는 側壁部 積石을 쌓았다는 것이 確認되었기 때문이다. 즉 地上積石式 積石 木槨墓의 側壁部 積石은 基本的으로 木造架構를 짜고 積石하는 것으로 確認되었다. 또 當時 天馬塚을 직접 發掘하고, 報告書의 高墳의 構造 항목을 記述한 報告者 중 한 사람인 金東賢의 口述集이 最近 刊行되었는데, 여기에서 天馬塚에도 木造架構가 있었다는 記述이 있기 때문에 天馬塚의 木造架構는 다시 問題가 된다.

“積石을 쌓을 때 그냥 쌓은 것이 아니고 飛階를 맨 것이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돌을 쌓아 올린 것이지요. 그 구멍을 찾은 것이지요. 웬만한 考古學者는 그냥 막 걷어 냈을 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구멍이 등 간격으로 나오더라고요. 옆으로 가는 것이 또 나오고. 飛階 짜듯이 全部 짜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쌓아서 그 높이로 올린 것이지요. 그냥은 도저히 올릴 수가 없지요.”

(建築都市空間研究所 國家韓屋센터 2015 p.121 「天馬塚 發掘—工學者의 時刻」)<sup>13)</sup>

이 記述을 그대로 信賴한다면 天馬塚도 積石部를 築造하기 전 木造架構를 짰 셈이다. 그러나 天馬塚 發掘에 參與한 大部分의 研究者가 木造架構 痕迹은 確認할 수 없었다고 記述하고 있으므로 어찌면 金東賢은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에서 確認된 木造架構와 混同했을 수도 있다. 皇南大塚의 事例로 보면 木造架構는 積石部の 側壁部 積石을 築造하기 위한 構造이기 때문에, 天馬塚에서 木造架構의 痕迹을 發見하기 위해서는 側壁部 積石을 確認해야 한다. 現在 報告書의 積石部 寫眞은 蓋部 積石이 露出된 것이 全部이기 때문에 앞으로 報告書에 실리지 않은 側壁部 積石의 寫眞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이와 관련해 天馬塚 調査 日誌를 살펴보면 ‘陷沒部 남쪽에 접하여 腐蝕한 木板이 3m의 길이로 少量씩 두께 1m로 나타나며’, 그것에 접해 ‘南壁의 거의 全面과 西壁의 一部에서 煙氣에 그을린 듯한 川石이 多數 出土’되었다고 한다.<sup>14)</sup> 報告書에는 言及되지 않은 內容이지만 筆者가 金冠塚 積石部를 調査할 때도 積石部 內部와 外面에 남아있던 나무 기둥 구멍에서 비슷한 그을음이 確認된 바 있다. 實際 天馬塚 發掘을 經驗하지 못한 筆者의 無理한 推定일지도 모르지만 前述한 調査 日誌와 報告書, 側壁部 寫眞 資料 등을 土臺로 天馬塚 積石部の 築造 過程을 再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筆者가 天馬塚 積石部の 木造架構의 存在를 疑心하는 理由는 木槨과

13) 天馬塚 木造架構에 대한 金東賢의 口述은 天馬塚 리모델링 諮問會議에서 聖林文化財研究院 朴光烈 院長님이 確認해 주신 것이다.

14) 1973년 7월 2일자 調査 日誌,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關係者の 配慮로 天馬塚 調査日誌를 閱覽할 수 있었다.

側壁部 積石의 築造 過程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報告者는 木槨을 먼저 築造하고 側壁部 積石을 쌓았다고 한다. 木槨 側壁에 접해 積石을 쌓아 올라 간 것으로 推定되는데 木槨 側壁이 받는 壓力도 問題지만 積石의 築造 方式 등에 여전히 疑問이 있다. 넷돌로 3.3m 높이의 側壁部 積石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을지가 疑問이다. 또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의 경우 木造架構의 內1陳柱와 內2陳柱에 의해 마련된 側壁部 積石 床面에서 懸棺下葬이나 副葬品 安置와 같은 埋葬 節次가 자연스럽게 理解되지만 天馬塚은 그러한 空間을 想定하기 어려워 埋葬 節次나 作業 空間을 推定하기가 쉽지 않다. 皇南大塚과 天馬塚의 이러한 差異를 ‘單純化’라는 墓制 變化의 方向으로 理解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當時 發掘에서 確認하지 못한 構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疑心해 볼 必要도 있다고 생각한다.

## 5. 積石部와 木槨部の 築造 先後關係

積石部와 木槨의 築造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도 異見이 있다. 皇南大塚 北墳은 積石部와 木槨을 同時에 築造했다고 한다(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p.39). 皇南大塚 南墳은 木造架構를 設置하고, 主槨과 副槨을 築造한 후 木造架構에 맞춰 側壁部 積石을 쌓았다고 하므로 木槨이 먼저이고, 積石部가 나중이다(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p.38).

最近 積石木槨墓의 築造 工程을 자세히 檢討한 研究者는 1次 封土의 築造에 重點을 두고 積石部와 木槨의 築造 工程을 檢討했다. 沈炫瞰은 積石部를 1次 封土와 함께 築造한 후 木槨을 設置하고 埋葬 節次가 이루어 졌다고 보았다(沈炫瞰 2013). 다만 그 根據에 대해서는 分明하게 提示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洪潛植은 木槨 - 木造架構 - 側壁部 積石 순으로 復元한 바 있다(洪潛植 2016 p.41).

앞서 積石部の 區分에서 言及한 것처럼 四方 積石은 側壁部 積石과 木槨 사이를 充塡한 것이다. 이 工程이 可能하려면 木槨과 側壁部 積石을 同時에 쌓으면서 四方 積石을 하거나 側壁部 積石을 먼저 쌓고, 木槨을 設置하면서 四方 積石을 하는 方法이 있다. 筆者는 金冠塚의 四方 積石의 樣相으로 보아 後者가 더 妥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石段 위에 木槨을 세우는 方式은 四方 積石으로 木槨을 充塡하여 木槨을 堅固하게 할 必要가 있다. 그러기 위해 木槨 築造 當時 側壁部 積石은 이미 築造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木造架構를 짜고 側壁部 積石을 먼저 築造한 후 그 内部에 木槨을

設置하였을 것으로 推定된다(도면 5).

## 6. 積石部와 木槨部の 性格

지금까지 木槨部는 積石木槨墓를 構成하는 部分이고, 積石部는 積石封土를 構成하는 部分으로 理解해 왔다. 무엇보다 積石部는 巨大 封土를 쌓기 위해 考案된 構造이며, 墳의 一部로 理解하는 研究者가 大多數이다. 이러한 認識과는 달리 皇南大塚 北墳 報告者(金正基·趙由典)는 積石의 構造에 대해 積石石室 口實을 하고 있다고 記述한 바 있다. 그들은 木造架構도 積石石室이 地上에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考案된 構造로 理解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積石部가 단순히 墳의 一部만 아니라 墓의 機能까지도 겸하고 있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車順喆은 木造架構의 全體的인 形態가 家屋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單純히 墳丘 築造를 위한 施設物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木造架構는 巨大 構造物로 墳墓를 감싸는 하나의 建物로 推定되며, 封墳의 盛土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木槨을 보호하는 機能과 ‘殯’으로서의 機能을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推定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車順喆 2005 p.9 및 p.16).

木造架構를 하나의 建物로 理解하고 그 性格을 殯殿으로 推定한 것은 아주 獨特한 視角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韓半島 前近代 王朝에서 殯殿이 무덤에 設置된 예는 거의 없다<sup>15)</sup>는 점에서 問題가 될 듯 하다. 그러므로 木造架構를 殯殿으로 推定한 것은 無理한 생각이다. 다만 木造架構를 建物로 推定한 점은 나름 興味로운 認識인데, 木造架構 그 自體가 建物이기보다 皇南大塚 北墳 報告者(金正基·趙由典)가 言及한 것처럼 積石部가 마치 積石石室처럼 建築으로 築造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木造架構는 그 自體로 埋葬 儀禮가 進行되는 동안 維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木造架構에 積石된 상태에서 埋葬儀禮가 進行된 것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積石部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木槨 內部에 埋葬 儀禮를 進行하기 전 이미 築造되어 있는 構造이며, 內1陳柱와 內2陳柱에 의해 形成된 側壁部 積石의 床面은 木槨의 築造와 埋葬 儀禮를 進行하기 위한 作業 空間으로 推定된다.<sup>16)</sup> 側壁部 積石의 斷面

15) 高麗時代 國王의 殯殿도 宮闕 안 建物이 이용되었다. 대개 殯殿의 位置는 當時 觀念에 따라 宮闕 내 特定 位置의 建物에 있었을 것으로 推定되며, 죽은 사람이 極樂世界로 가는 서쪽 方向의 建物을 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高麗時代 國王의 葬禮 節次와 特徵에 대해서는 김인호의 글(2010)을 參照할 것.

16) 이와 비슷하게 崔鍾圭도 木槨 內 石壇을 작업 공간으로 推定한 바 있다(崔鍾圭 2014 p.215).



은 사다리꼴로 여기에서 進行된 埋葬 儀禮를 생각하면 그것은 마치 祭壇을 연상케 한다. 結局 側壁部 積石은 埋葬 儀禮를 위한 一種의 作業 空間이자 祭壇이라고 判斷된다(도면 5-3). 木造架構가 建物이 아니라 積石部和 木槨이 모두 하나의 祭壇이자 地上의 建築으로 理解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도면 5-5).

前述하였다시피 지금까지 大部分의 研究者는 積石部를 巨大 封土를 쌓기 위한 構造로 理解해 왔다. 그러나 積石部の 築造 過程과 埋葬 프로세스를 考慮하면 積石部는 墳의 一部가 아니라 墓의 建築 構造로 理解하여야 할 것 같다. 筆者는 木槨과 積石은 하나의 一體 構造로서 地上화된 建築이고 埋葬 儀禮를 위한 祭壇과 같은 機能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즉 積石部和 木槨部는 別個의 構造가 아니라 두 部分이 하나의 건축 構造이다. 하나의 建築이므로 分離될 것이 아니라 그것 自體로서 하나의 地上 建築으로 理解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建築의 性格에 대한 자세한 論議는 論旨와 紙面상 別考에서 다루고자 한다.

#### IV. 맺음말

積石木槨墓의 積石部和 木槨部를 分離해서 研究하는 傾向은 日帝强占期부터 시작되었다. 二元的 系統觀이라고 崔秉鉉이 이름 붙인 研究 傾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傾向은 자연스럽게 積石部和 木槨部를 分離해서 研究하는 認識을 심어주었다. 現在까지도 그런 認識은 그대로 維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日帝强占期 日本人 研究者의 研究 觀點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最近 木槨部和 積石部를 精緻하게 復元하고 그것을 土臺로 喪葬禮 또는 埋葬 儀禮를 復元하는 研究가 새로운 研究 傾向으로 登場하고 있다. 이러한 研究가 可能的한 것은 過去 天馬塚과 皇南大塚을 精密하게 發掘하고 꼼꼼하게 報告書를 刊行한 先學들의 勞苦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積石木槨墓의 埋葬儀禮를 復元하는 研究를 읽어보면 木槨部和 積石部는 별개의 構造가 아니라 儀禮 過程에서 서로 有機的으로 密接한 관련이 있다고 理解된다. 그래서 筆者는 側壁部 積石은 埋葬 儀禮를 위한 하나의 祭壇과도 같은 役割을 하였다고 보았고, 蓋部 積石이 쌓인 最終 形態는 建築을 形象化한 것으로 推定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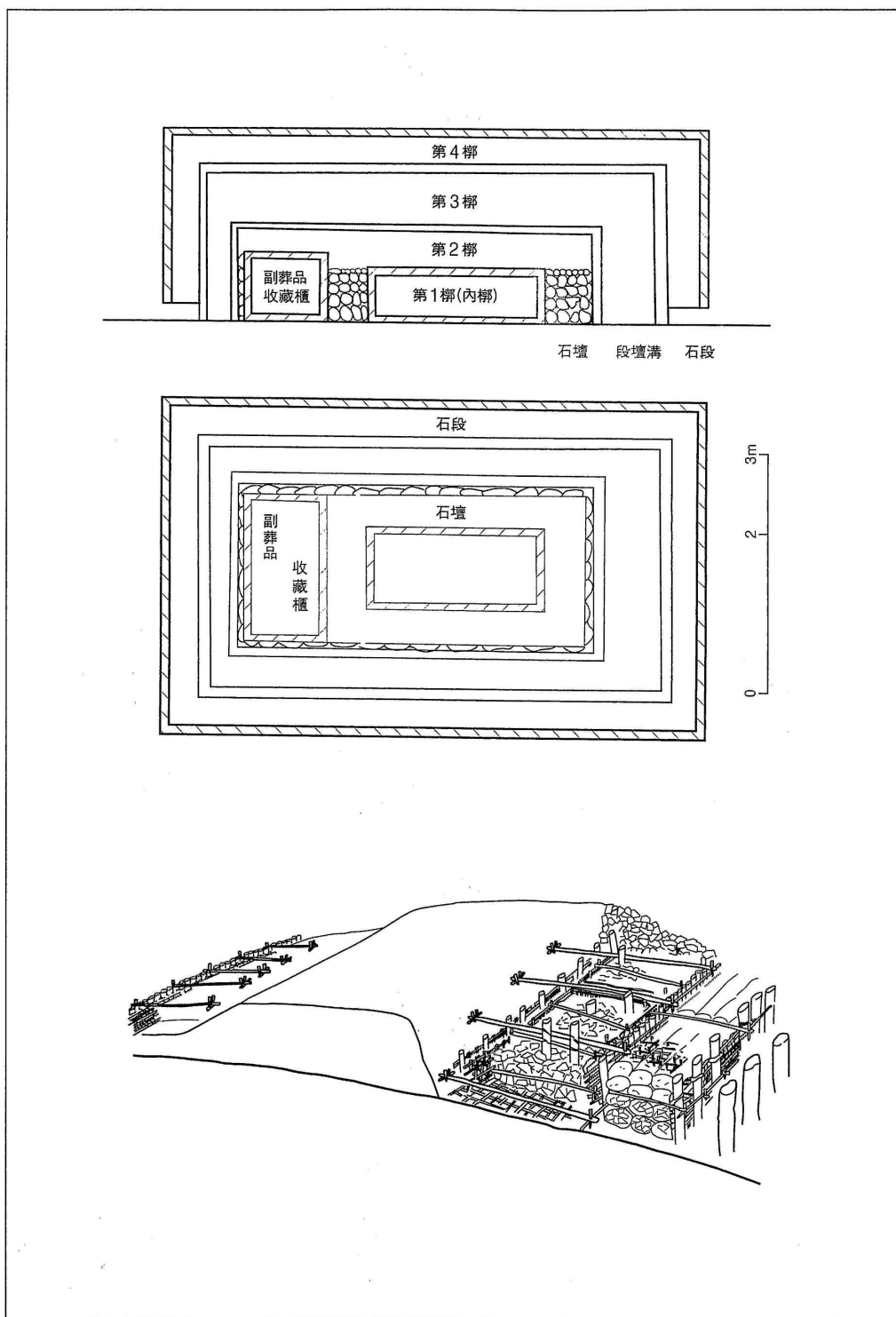
이러한 推定은 어떤 文獻的 根據나 民族誌의 事例를 土臺로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麻立干期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가 왜 出現하고 어떤 意味의 記念物(monument)이었는가를 理解하는 데에 重要的 示唆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墓

制의 변화와變動을單純히 皮相的으로 記述하거나 文獻 記錄과 比較해 解釋해 왔다.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出現은 當代 社會・經濟・政治的인 變化와 密接한 관련이 있는 麻立干의 記念物(moument)이다. 우리는 이러한 記念物의 出現과 變動을單純히 構造와 規模의 變化로만 記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社會 文化的으로 說明할 必要가 있다. 그런 意味에서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를 하나의 墓制 樣式으로만 記述하기보다 儀禮用 祭壇이나 建築으로 說明하는 것은 重要的인 認識의 轉換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積石部가 木槨部와 함께 하나의 무덤 建築 記念物이라면 起源과 系統을 研究해 온 研究 觀點에도 重要的인 示唆을 줄 것이다. 여기에서 積石木槨墓의 起源을 다시 論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比較 對象으로 해 온 周邊 地域의 資料가 과연 적절한 比較 對象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比較 方式이 과연 妥當한지 앞으로 根本적인 問題 提起를 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感謝> 天馬塚 發掘 關聯 資料는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박윤정 室長님과 文化財廳 新羅王京核心遺蹟 復元整備事業推進團 權宅章 팀장님의 配慮로 閱覽할 수 있었다. 天馬塚 硏究의 관찰은 國立慶州博物館 金有植 學藝研究室長님과 金赫中 先生님의 協助을 받았다. 또 天馬塚의 木槨과 積石部에 대해서는 崔秉鉉 教授님으로부터 자세한 說明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馬塚과 金冠塚 構造에 意見 差異가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筆者의 立場이다. 이외에도 洪潛植 福泉博物館長님은 發表 當日 부족한 發表文을 읽고 重要的인 指摘을 해주셨다. 紙面을 빌어 이 분들께 깊이 感謝드린다.

<後記> 筆者의 發表 以後 崔秉鉉 教授님은 發表文을 읽고 重要的인 意見을 주셨다. 天馬塚 木造架構에 대한 金東賢 先生님의 口述은 筆者의 생각대로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의 事例와 混同한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開口部에 대해서는 그것을 支持하는 構造를 당연히 생각했으나 實際 發掘에서 確認되지 않아 圖面으로 表現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또 金冠塚의 埋葬主體部의 下部構造가 매우 독특한 점에서 日帝強占期 收拾 調査 後 攪亂되었을 可能性을 指摘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發表文의 다른 問題點에 대해 많은 助言을 해주셨으나, 論文으로 기고하는 過程에서 전체적인 論旨를 堅持하다보니 意見을 모두 反映할 수 없었다. 筆者는 反影하지 못한 部分에 대해서 다른 論考를 통해 見解를 밝히고자 한다. 重要的인 問題를 指摘해 주신 崔秉鉉 教授님께 다시 한번 感謝드린다.



도면 1. 崔鍾圭의 天馬塚 復元案(上: 木槨 推定圖, 下: 木柱結構 模式圖)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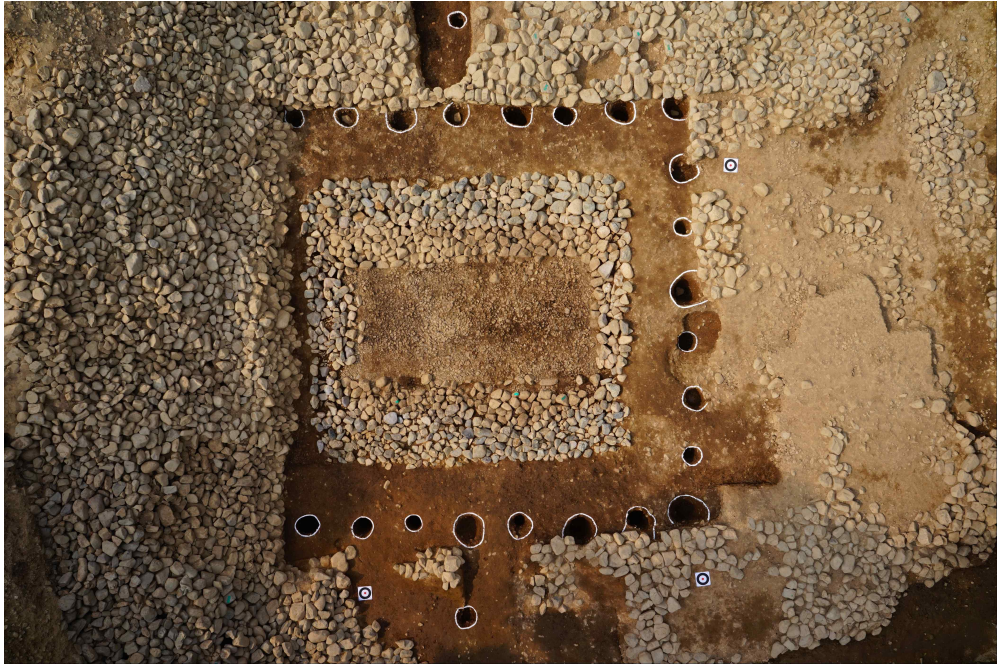


5



6

도면 2. 天馬塚 冑쇠 木質痕 類型(1~3: 1類型, 4~6: 2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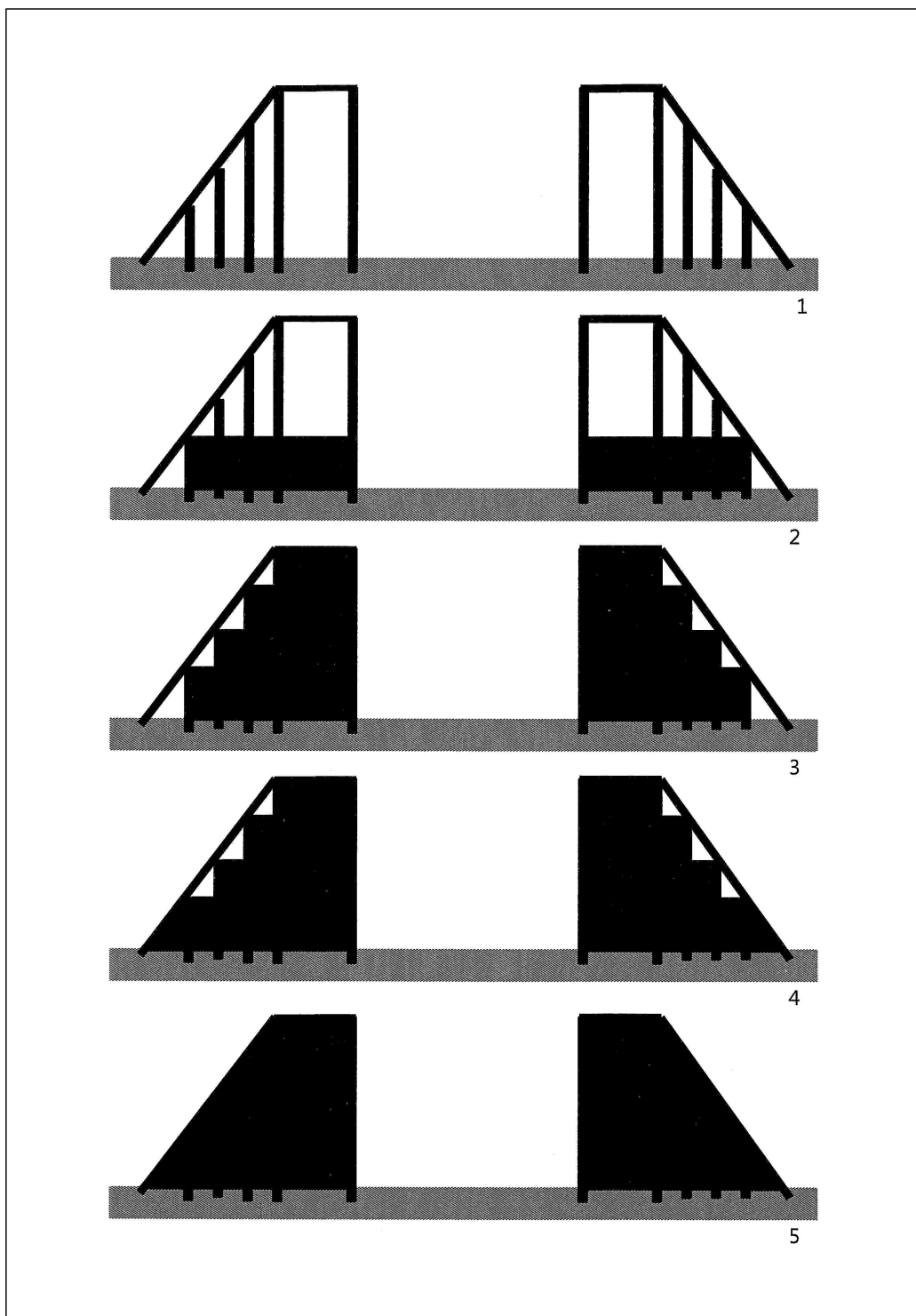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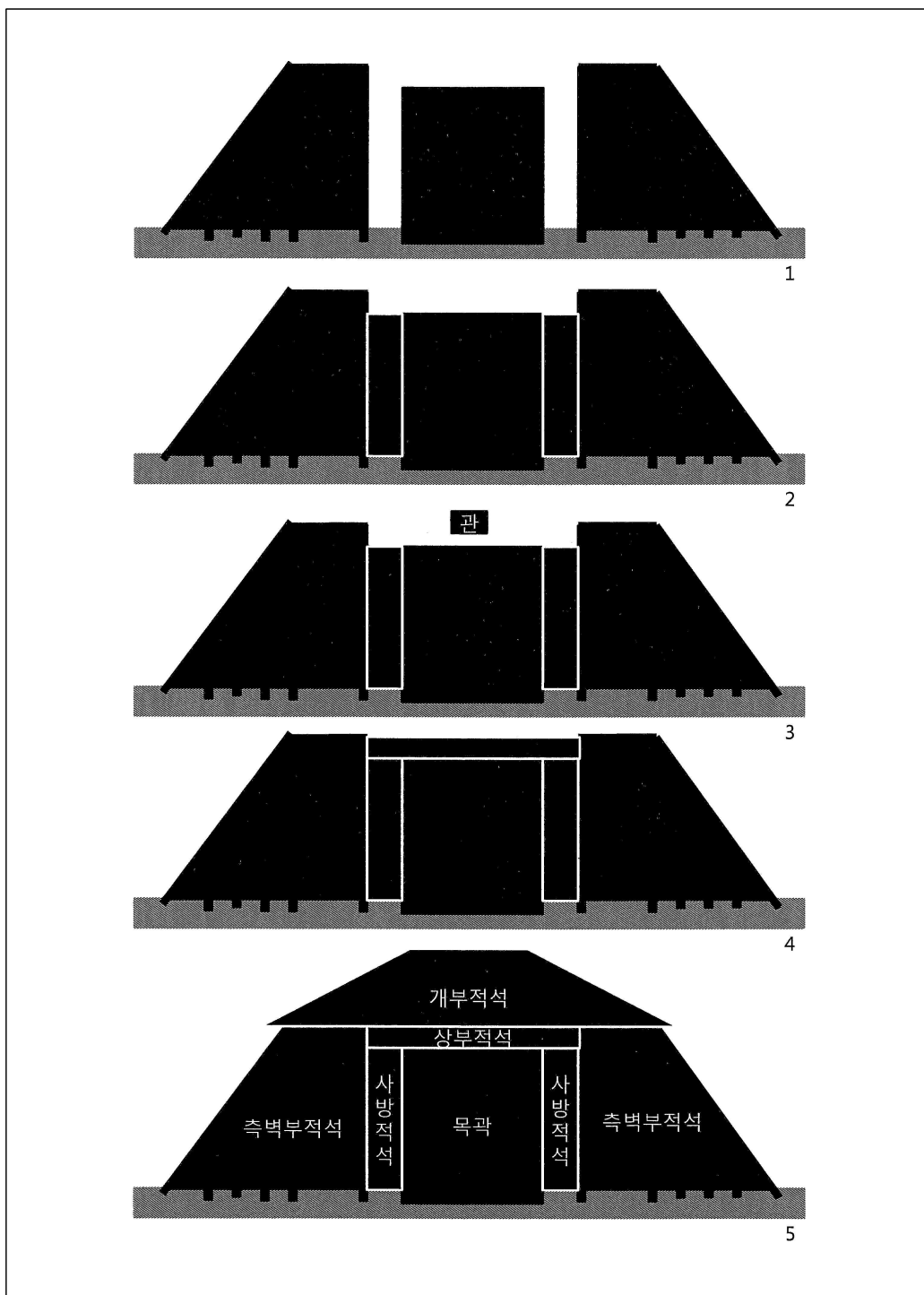
2

도면 3. 金冠塚 調査 結果(1: 埋葬主體部, 2: 調査 後 全景)





도면 4. 金冠塚 側壁部積石 築造 推定案(1: 1段階, 2~3: 2段階, 4~5: 3段階)



도면 5. 金冠塚 積石과 木槨의 築造 過程 推定案  
 (3: 縣棺下葬 段階/5: 蓋部積石 以前 積石 斜面 密封土 省略)

## 參考文獻

### • 韓國語

- 建築空間研究所 國家韓屋센터, 2015, 『와본 金東賢 口述集－韓國建築 保存研究에 바친 限平生』.
- 國立文化財研究所, 2014, 『傳統 木造建築 結構法』.
- 國立中央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 2015, 『金冠塚 發掘調査約報告書』.
- 權龍大, 2009, 「경주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복원 재고」, 『문화재』 42-3.
- 吉井秀夫, 2000, 「大伽倻系 竪穴式石槨墳의 “木棺” 構造와 그 性格－못, 꺾쇠 分析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記念論叢』.
- 金斗喆, 2009, 「積石木槨墓의 構造에 대한 批判」, 『古文化』 73.
- 金龍星, 2007, 「新羅積石封土墳의 地上式 埋葬主體施設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56.
- 金龍星, 2010, 「日本人의 新羅古墳 調査」, 『先史와 古代』 33.
- 金龍星, 2014, 「古墳으로 본 新羅의 葬送儀禮와 그 變革」, 『中央考古研究』 15.
- 金龍星, 2015, 『新羅古墳考古學의 探索』 (진인진).
-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韓國中世史研究』 29.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3,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圖面・圖版)』.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本文)』.
- 朴光烈, 2014, 「新羅積石木槨墳의 研究와 金冠塚」, 『考古學誌』 18.
- 朴永福, 1977, 「古新羅時代의 墓制考察」, 『史學志』 11.
- 沈炫澈, 2013, 「신라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과정」, 『한국고고학보』 88.
- 李盛周, 2014, 「貯藏祭祀와 盛饌祭祀: 木槨墓의 土器副葬을 통해 본 飲食物 奉獻과 그 意味」, 『嶺南考古學』 70.
- 李恩碩, 1999, 「慶州 皇南大塚 構造에 대한 一考察」, 『考古歷史學志』 15.
- 李熙濬, 1996, 「慶州 月城路 가-13號 積石木槨墓의 年代와 意義」,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 記念論叢』.
- 李熙濬, 2016, 「嶺南地方 3~5世紀 木槨 構造 復元案들의 綜合討論」, 『野外考古學』 25.
- 車順喆, 2010, 「新羅積石木槨墳 發掘調査와 研究成果 檢討」, 『考古學 發掘과 研究: 50年の 省察』 (주류성).
- 崔秉鉉, 1980, 「古新羅積石木槨墓 研究(上)」, 『韓國史研究』 31.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崔秉鉉, 2016, 「新羅前期 積石木槨墳의 出現과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墓制 展開」, 『文化財』 49.



- 崔鍾圭, 2011, 「積石塚의 封, 槨, 殉」, 『考古學探究』 9.
- 崔鍾圭, 2014, 『鐵箱集-葬送』 (圖書出版 考古).
- 咸舜燮, 2008, 「嶺南地方 三韓・三國時代 살림집의 復元研究」, 『東垣學術論文集』 9.
- 洪潛植, 2003, 『新羅後期 古墳文化 研究』 (春秋閣).
- 洪潛植, 2016, 「古墳 構築 技術로 본 蓮山洞 高塚古墳」, 『蓮山洞 高塚古墳과 그 被葬者들』.

• 日本語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a,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本文上冊』 (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b,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上冊』 (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8, 『慶州金冠塚とその遺寶 圖版下冊』 (朝鮮總督府).
- 濱田青陵, 1932, 『慶州の金冠塚』 (慶州古蹟保存會).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tone Mound and Wooden Chamber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of Aboveground Stone Mound Style

Kim Dae-hwan

The tendency to conduct research on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by dividing them into wooden chambers and wooden mounds bega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dual systematic research view” was named by Choi Byung-hyun. Such a trend has created an atmosphere in which the stone mound area and the wooden chamber area have been studied separately, and this trend has continued right up to the present day, thus maintaining the viewpoints of the Japanese researchers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New research trends have recently emerged by which the wooden chamber area and the stone mound area are being restored, along with funeral and burial rites. Such research is made possible thanks to previous scholars’ dedicated efforts to publish detailed reports on the excavation of the Cheonmachong Tomb and the Hwangnamdaechong Tomb. The studies on the restoration of the burial rite containing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suggest that the wooden chamber and the stone mound were not designed as separate structures, but were in fact closely related to the ritual process. Thus, it is presumed that the wall-side stone mound probably served as a burial rite altar, and that the finally constructed opening-area stone mound shape was estimated by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e.

Key words : Aboveground stone mound styl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wooden chamber, stone mound, rite altar, construction

#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積石部와 木槨部の 性格’에 대한 討論文

洪 潛 植\*

이 發表를 통해 發表者는 평소 견지해온 견해와 최근에 金冠塚의 發掘調査를 주도하면서 새롭게 확보한 사실에 기초하여 積石木槨墓의 구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積石部를 4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金冠塚의 側壁部 積石의 구축 공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에 積石部 上面을 亡者와 副葬品을 안치하기 위한 작업 공간 및 제단으로 설정하였다. 二重槨 構造, 木造架構·側壁部 積石→木槨 설치·四方積石의 축조 공정, 積石部와 木槨部가 제단이자 지상 건축물로 파악한 견해는 새롭고, 향후 積石木槨墓의 연구 시각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해석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積石木槨墓의 개념과 범주 및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제목에서 제시한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개념과 구조이다.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란 木槨과 묘광 사이에 돌을 충전한 木槨墓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積石木槨墓의 범주를 확대하거나 계기적인 발전 단계를 상정한 시각에서 탄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發掘調査를 통해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와 대응 관계에 있는 완전히 지하에 積石을 한 積石木槨墓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상에 積石을 하는 것은 주위의 재료를 이용하여 무덤의 規模를 크게 하기 위한 高塚化의 산물이다. 高塚化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상에 積石部를 조성해야 하며, 지하에 積石部를 조성하면, 封墳의 規模를 크게 하는 高塚化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地下積石式이나 四方積石式의 積石木槨墓는 木槨墓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최병현 1992;2016, 이성주 1996, 김두철 2009, 沈炫皦 2013, 박광열 2014). 積石木槨墓가 집중 분포한 月城 北西

---

\* 복천박물관

쪽 일대의 發掘調査 성과에 의하면, 月城路 가-29·30·6·8호묘, 쪽샘 C지구 10호묘 등은 木槨墓로서 木槨의 下部만 地下에 위치한 半地上式이고, 封墳(積石部 또는 封土)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쪽샘 C지구 10호묘는 月城 北西쪽 일대에서 積石木槨墓가 등장하는 시기에 아주 근접하여 積石木槨墓 등장 과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쪽샘 C지구 10호묘는 高塚古墳이 아니며, 四方積石은 확인되지 않았고, 木槨 내부에 積石이 확인되지 않아 上部 積石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볼 때 積石部の 존재는 封墳의 高塚, 즉 高大化를 위한 산물임을 나타낸다. 封墳의 高大化를 위한다면, 高大化를 달성하기 위한 構造物이 地上에 구축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積石木槨墓의 積石은 古墳의 高塚化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창안된 것으로서 地上積石式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積石木槨墓의 木槨 높이를 天馬塚은 2.1m 이상이고,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積石木槨墓는 積石木槨墓가 가장 밀집해 있고, 전형적인 예가 분포한 月城 北西便의 古墳群에 선행 묘제인 月城路 가-29·30·6·8호묘와 쪽샘 C지구 10호묘의 묘형을 계승하였는데, 선행 木槨墓에 四方 積石이 되었는지의 여부 파악이 관건이다. 이 문제는 선행 木槨墓의 木槨 높이와 木槨의 위치, 즉 木槨이 완전히 지하에 설치되느냐 木槨 上部가 地上으로 올라온 構造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한 木槨墓의 木槨 높이가 어느 정도이고, 地下式이나 半地上式이나의 파악과 함께 積石木槨墓의 木槨 구조와 비교 검토해서 積石木槨墓의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지 또는 미고지의 지형에 고분을 축조할 경우, 직경이 넓고, 높이가 높은 封墳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封墳材 확보와 높은 수준의 성토기술, 즉 토목기술의 확보가 관건이다. 積石木槨墓가 조영된 月城 北西쪽 일대는 평지와 미고지로 이루어진 지형과 함께 서천과 남천, 북천 등에 의해 외부와 분리된 자연 조건하에 놓여있다. 당시의 도로 및 교량 건설 기술과 운송 수단으로서는 規模가 크고, 많은 수의 高塚古墳을 조영하기 위한 흙을 하천 건너로부터 공급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高塚古墳을 조영하기 위해서는 月城 北西쪽 일대의 지표 하와 북천변에 산재한 냇돌을 봉분재로 활용한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慶州 月城 北西쪽 일대에서 積石木槨墓가 성립한 요인으로는 삼면이 하천으로 둘러싼 자연 환경과 당시의 운송수단 및 기술의 한계, 내부의 평지 또는 미고지의 자연 지형과 외부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토량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봉분재로서 주위에 산재하여 쉽게 획득

가능한 넷돌의 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등장한 산물이다. 따라서 木槨·上部積石·橢圓形 封墳·護石 등을 積石木槨墓의 구성 요소(최병현 2000, 김두철 2009, 沈炫澈 2013)로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發表者は 天馬塚의 木槨 높이를 2.1m 이상으로 추정한 당초의 보고안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木槨 높이가 2.1m이고, 側壁 積石部의 높이가 3.3m라고 했을 때, 木槨 상면에서 側壁 積石部 상단까지의 높이 차이가 1.2m나 되는데, 이 1.2m의 높이까지 木槨 측판 없이 積石하려면, 積石部 목주에 측판이 부가된 木造架構가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발표문에는 天馬塚의 積石部에 木造架構의 설치 가능성을 암시하였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木槨 뚜껑 위에서 側壁 積石 상단 높이까지의 공간은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天馬塚의 埋葬主體部 구조를 논하면서, 木槨의 높이를 2.1m이란 점만을 언급하고,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표 1>에 제시된 皇南大塚 南墳·北墳·天馬塚·金冠塚의 內槨과 外槨의 規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4기의 積石木槨墓 埋葬主體部의 구조는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피력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가 積石木槨墓의 木槨을 상자형태와 측판 및 뚜껑의 목재를 1겹으로 복원하여 왔고, 발표자도 동일한 형태와 구조로 이해하는 것 같다. 天馬塚에서 출토한 꺾쇠의 형태와 목질 부착 위치 및 범위 등을 분석하여 횡장판을 상하로 결구하는 곳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박힌 것으로서 木槨의 측판 또는 뚜껑, 뚜껑과 측판을 결합하는 용도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 특히 뚜껑과 측판을 결합하려면, 측판과 뚜껑의 끝이 동일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동강유역의 木槨묘(석암리 20·200호분, 정오동 5호분, 王盱墓, 彩篋塚 등의 귀틀무덤)나 중앙아시아 일대에 분포한 쿠르간의 木槨은 뚜껑으로 사용한 목재가 木槨의 너비나 길이 바깥까지 걸쳐져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목재가 걸쳐진 방향도 木槨의 길이 또는 너비 등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목재를 1겹만 놓지 않고, 2겹(이중)으로 설치한 사례도 있다. 2겹으로 설치할 경우, 하판과 상판의 방향이 서로 교차되도록 놓았다. 뚜껑재를 2겹으로 놓거나 상·하판재의 방향을 교차되도록 놓은 것은 뚜껑 위의 封墳 하중으로부터 木槨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의 대형 木槨의 구조를 고려할 때, 대형 積石木槨墓의 木槨 구조와 형태를 다르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꺾쇠만을 언급하였다. 天馬塚 보고서에는 꺾쇠와 함께 鐵釘 44점이 출토되었다고 하였는데, 발표문에

철정은 木槨 결구제로 언급하지 않았다.

大型 積石木槨墓는 埋葬主體部를 설치할 공간을 대상으로 지면을 굴착하고, 바닥에 냇돌과 자갈을 깔고, 그 위에 木棺과 木槨을 설치한 구조이다. 지면을 굴착하고, 냇돌을 깔 것은 배수 기능과 함께 지반 침하의 소지를 없애 埋葬主體部の 안정을 도모한 토목공법의 하나로 추정된다. 棺과 槨 또는 내곽과 외곽 사이, 木槨 설치 지점 하부에 석단을 조성하였는데, 석단 상면이 평탄면을 이루고 있어 遺物을 부장하거나 순장자를 안치하는 공간 또는 작업 공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二重槨 구조일 경우, 지금까지의 槨 구조 복원안에 의하면, 내곽과 외곽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을 상정하였는데, 외곽의 경우 측판 외측에 積石이 있어 木槨 측판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지되지만, 안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木槨과 側壁 積石部 설치 시점의 선후관계는 古墳의 전체적인 축조 공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모든 積石木槨墓가 동일하기보다는 古墳의 規模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쪽샘 44호분의 경우, 미세한 시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木槨과 積石 및 封土를 병행하면서 조성하였거나 황오동 100유적의 3호 積石木槨墓와 같이 木槨을 설치한 후, 四方에 積石을 한 예도 있을 것이다. 皇南大塚 南墳과 北墳, 金冠塚·天馬塚 등 積石部가 방형이고, 木造架構가 설치된 대형 積石木槨墓의 경우, 木槨과 四方 積石의 선후관계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표자는 側壁部 積石의 축조공정을 세단계로 설정하였는데, 이 공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1단계의 積石 상면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설정한 1단계의 積石 상면이 副葬品과 亡者를 안치하는 작업공간이었다면, 이는 이미 木槨(적어도 木槨 下部)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側壁部 積石이 먼저 설치되고 木槨이 설치되었다면, 二重槨일 경우, 側壁部 積石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棺과 내곽의 설치도 외곽과 동일하게 側壁部 積石보다 늦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곽이 側壁部 積石보다 늦게 설치되었다면, 제1진주의 평면형태가 외곽의 평면형태와 같고, 외곽과 제1진주 사이의 공간이 木槨에 사용한 목재의 두께 정도로 좁아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제1진주를 연결한 칸막이 시설(판재이거나 환재)이 설치되고, 칸막이 외측에 積石을 하고, 외곽의 측판이 이 칸막이 측판에 밀착되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1진주의 칸막이 측판과 외곽의 측판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埋葬主體部 설치 후 또는 고분 축조 완료 후에 칸막이가 부식하면서

積石이 木槨 측판으로 밀리면서 木槨 측판에 손상을 줄 우려도 있다. 積石木槨墓를 축조한 당시 인들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木槨(외곽)을 설치하고, 積石을 하였다면, 木槨과 側壁部 積石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木槨을 설치할 때, 積石의 횡압을 고려하면서 木槨을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積石木槨墓가 신라 중심 세력의 정체성을 표현한 정치·사회적 산물이지만, 積石木槨墓의 구조를 검토할 때는 건축기술, 즉 토목공법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경주 분지의 자연 및 지형조건 등을 함께 고려한 해석론이 필요하다. 積石木槨墓는 공통된 요소를 지니면서도 規模나 입지 등에 따라서 적용된 축조 공정 및 방식, 토목공법이 다를 수 있다. 이는 規模와 입지 등에 적합한 축조공정 및 방식, 토목공법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낸다.

## 參考文獻

- 김두철, 2009, 「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 『고문화』 73.
- 박광렬, 2014, 「신라 積石木槨墳의 연구와 金冠塚」, 『고고학지』 18.
- 沈炫澈, 2013, 「신라 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 공정」, 『한국고고학보』 88.
- 이성주, 1996, 「신라식 木槨墓의 전개와 의의」,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 최병현, 2016, 「신라 전기 積石木槨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문화재』 49.